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洪錫律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광주학생운동 서술 분석

2008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金 玟 暻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광주학생운동 서술 분석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金 玟 暻

認 准 書

金玟暻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4
1. 항일학생운동의 원인 및 배경	5
2. 학생시위의 발단과 전개	9
3. 항일학생운동의 이념	11
III. 광주학생운동사의 쟁점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5
1.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 정책	15
2. ‘명기머리 사건’과 시위의 전국화 과정	21
3. 개입 조직과 이념의 문제	28
IV. 결 론	34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논 문 개 요

일제는 1922년 제2차 교육령을 발표해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앤다는 준거주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게 조장하였고, 조선인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교육시켰다. 민족차별 교육정책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은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객관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저항의식이 커지자 학생운동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단체가 개입되면서 운동이 점차 조직화되었다. 객관적 원인에 주체적 힘이 결합되면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을 ‘댕기머리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차별정책 등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전개과정에서도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3·1운동에 버금가는 운동으로 1930년대 노동자·농민 운동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현재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는 학계의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선정 및 서술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광주학생운동의 중요한 원인인 민족차별교육에 대한 서술이 생략

되어 있거나 내용이 부족하며 배치 순서는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으로 ‘댕기머리사건’만을 비중 있게 다루어 전체 운동의 흐름 속에서 광주학생운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된 사회주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도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I. 서론

광주학생운동¹⁾은 1929년 11월 3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이 일제의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일으킨 전국적 학생운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해 목포, 나주, 서울을 거쳐 1930년에는 전국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운동 가운데 하나로, 그 규모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의의는 3·1운동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어 발생했지만, 단순히 민족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하의 민족차별교육이라는 객관적인 원인과 항일학생운동의 성장이라는 주체적 조건이 결합해 발생한 운동이었다.

당시 일제는 대외적으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게 조장하였고, 그들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교육시켰다. 민족차별 교육정책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일제는 조선인 학생이 어릴 때부터 조선인으로 느끼지 못하게 교육하는 것을 의도하였지만, 조선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은 차별은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건 아래서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에 사회단체가 개입하여 학생운동은 점차

1) ‘광주학생운동’이라는 명칭에 대해 이 운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전국운동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11·3운동’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박찬승, 『11·3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광주독립학생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최성원, 『11·3운동』, 대한교과서(주), 2004; 김호일, 『11·3학생운동』,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조직화되었다. 이것이 학생들의 저항의지를 표출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며 크게 광주학생운동 전개에 관한 연구와 이념적 성향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광주학생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만규와 신주백²⁾은 광주학생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1920년대 민족차별교육의 실상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장석홍³⁾은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인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조동걸과 이준식⁴⁾은 영향 및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한편 박찬승⁵⁾은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으로 통용되던 ‘댕기머리사건’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의 이념적 성향에 관하여는 김호일⁶⁾이 당시의 사회주의는 현재의 사회주의와 달랐음을 말하면서 광주학생운동은 사회주의와 관련 없는 학생운동이었다고 말하였다. 반면 안건호, 박혜란, 조동걸, 김동춘, 김성보, 박찬승⁷⁾은 당시 학생운동에 나타난 사회주의적 이념을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준식⁸⁾은 신간회 등을 예로 들면서 광주

-
- 2) 이만규, 『조선교육사』Ⅱ, 거름, 1991; 신주백, 「광주학생운동의 주체」,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 3) 장석홍, 「광주학생운동의 국내외 확산과 그 성격」,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 4) 조동걸, 「광주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이준식,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한국역사연구회, 1995.
 - 5) 박찬승, 「11·3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광주독립학생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 6) 김호일, 「광주학생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 7)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85.
조동걸, 앞의 논문, 2000.
김동춘, 「1920년대 학생운동과 맑스주의」, 『역사비평』 가을호, 1989.
김성보, 「광주 학생 운동과 사회주의 청년·학생조직」, 『역사비평』 봄호, 1989.
박찬승,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정치사상적 배경」,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 1992.
 - 8) 이준식, 앞의 논문, 1995.

학생운동사 서술에서 민족주의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의 광주학생운동의 서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서 서술 자체의 정확성 여부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용 선정과 그 서술에 관해도 살펴보아야 한다.

광주학생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민족차별교육정책과 1920년대 학생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개입한 단체의 역할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기존 교과서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현재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는 모두 6종이며, 그 출판사와 집필진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출판사 명칭으로 각 교과서를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중앙’, 금성출판사는 ‘금성’, 대한교과서는 ‘대한’으로 줄여쓰기로 한다.

[표 1] 검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번호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약칭
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진오 외 4인	2007	중앙
②	천재교육	김홍수 외 5인	2007	천재교육
③	두산	김광남 외 4인	2007	두산
④	금성출판사	김한중 외 5인	2007	금성
⑤	대한교과서	한철호 외 5인	2007	대한
⑥	법문사	김중수 외 3인	2007	법문사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모든 교과서의 대단원과 중단원 편제는 [표 2]와 같으며,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된 서술은 대단원 “Ⅲ.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에서 이루어진다. 중단원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중 소단원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는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을 하며,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중 소단원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서는 광주학생운동의 배경이 된 민족차별교육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표 2]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목차

대단원	중단원
I.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1. 근대 사회의 태동 2. 근대 사회의 특성 3. 현대 사회의 이해
II. 근대 사회의 전개	1.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2. 개화 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3. 구국 민족 운동의 전개 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5.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의 형성
III.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
IV. 현대 사회의 발전	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3.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1. 항일학생운동의 원인 및 배경

대부분의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의 발생 배경이 된 민족차별 교육정책과 민족말살교육, 1920년대 학생운동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민족차별 교육정책에 관한 서술은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와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는 대한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광주학생운동이 식민지 교육에 저항한 운동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⁹⁾ 그리고 두산, 중앙, 범문사 교과서는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민족 차별 교육정책에 대

9) 모든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 당시의 격문을 실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식민지노예교육의 철폐도 포함된다.

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두산, 중앙, 법문사¹⁰⁾ 교과서는 모두 제2차 교육령¹¹⁾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 교육정책이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중앙과 두산교과서는 일제가 ‘2차 교육령’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준거주의’를 표방했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중앙교과서는 서당 설립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서당 학생의 수는 줄고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을 예로 들어 일제의 유화정책 속에는 보통 교육의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한국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두산교과서는 일본인 교사의 채용비율이 여전히 높음을 예로 들어 그 밑바탕에 깔린 동화주의나 차별주의가 변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탐구과제에서는 2차 교육령의 내용을 반박하며 차별의 실상¹²⁾에 관해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두 교과서는 일제가 교육정책을 바꾸면서 표방한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천재, 금성, 대한교과서는 1920년대에 바뀐 교육정책에 관해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일제의 교육 목적이 하급기술자 양성에 있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¹³⁾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학생 수의 비교를 자료로 제

10)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7, 244~245쪽,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7, 222~223쪽.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7, 216쪽.

11) 제2차 교육령은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한다는 준거주의를 표방한 교육령이다. 이 교육령은 학제, 수업연한을 일본인의 그것과 같게 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또, 조선어를 필수과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만규, 『조선교육사』Ⅱ, 거름, 1991, 170~175쪽.)

12) 일본어의 상용 유무에 따라 학제를 달리하였고,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사범학교를 신설하였지만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양성하였다.(김광남 외, 앞의 책, 224~225쪽.)

13)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7, 228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7, 220쪽.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7, 242쪽.

시해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었다. 중앙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서당의 학생 수를 비교¹⁴⁾하였고, 나머지 교과서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취학자 비율을 비교¹⁵⁾하였다.

민족말살교육에 관한 서술 역시 중단원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에 비해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는 금성과 두산교과서¹⁶⁾가 1920년대 전반 학생 운동에 원인에 대해 각각 민족적 차별과 모욕적 언사, 학내문제와 교원배척 때문에 일어났다고 서술해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차별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는 두산교과서¹⁷⁾가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등 관리층은 일본인이 독점하여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민족말살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교과내용’에 관해 서술하였다. 유일하게 중앙교과서¹⁸⁾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도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선전하였지만,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되고 조선어 과목은 조선어를 일본어로 해석하는 식이었으며, 조선 역사와 지리는 교과목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서술해 그 내용도 풍부하게 다루었다.

14) 1912년부터 1942년까지 서당의 수는 18,238에서 3,052로 줄어들어 학생 수가 169,077명(63.7%)에서 153,784명(7.4%)로 줄어든 반면, 각종 초등학교 학생총수는 96,376명(26.3%)에서 1,912,068명(92.6%)로 증가하였다.(주진오 외, 앞의 책, 245쪽.)

15) 조선인과 일본인의 취학자 비율은 초등학교 1:6, 중등학교(남) 1:21, 중등학교(여) 1:107, 실업학교 1:21, 사범학교 1:16, 전문학교 1:26, 대학예과 1:109였다. (김한중 외, 앞의 책, 227쪽; 김종수 외, 앞의 책, 217쪽; 김광남 외, 앞의 책, 224쪽; 한철호 외, 앞의 책, 220쪽; 김홍수 외, 앞의 책, 232쪽.)

16) 김한중 외, 앞의 책, 184쪽.

김광남 외, 앞의 책, 180쪽.

17) 김광남 외, 앞의 책, 222쪽.

18) 주진오 외, 앞의 책, 200쪽.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교과내용을 서술한 교과서는 법문사, 금성, 중앙, 두산교과서¹⁹⁾이다. 법문사교과서는 조선어가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말하며, 금성교과서는 이 내용에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어 융화정책이 행하여졌음을 덧붙였다. 중앙교과서는 금성교과서의 내용에 당시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덧붙여 조선의 역사와 지리는 일본 역사와 지리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각급 학교는 일본어 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조선어 시간도 조선어를 일본어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일제의 융화정책 속에는 조선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두산교과서는 조선어와 조선사의 수업시간을 최소화하고 일본어, 일본사의 수업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역사와 지리교재에서 조선에 관한 것은 철저히 배제하여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려 하였고 일본 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일본인에 예속시키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20년대 학생 운동에 관하여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 서술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²⁰⁾는 비밀결사²¹⁾가 조직되었음을 서술하고, 학생운동이 동맹휴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금성과 두산, 대한교과서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고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천재교육교과서²²⁾는 수원고농의 ‘건아단’, 보성고보의

19) 주진오 외, 앞의 책, 244~245쪽.

김광남 외, 앞의 책, 222~223쪽.

김종수 외, 앞의 책, 216쪽.

김한중 외, 앞의 책, 228쪽.

20) 법문사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될 때 동맹휴학 등으로 투쟁하였다고 말할 뿐, 1920년대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김종수 외, 앞의 책, 178쪽.)

21) 금성과 법문사 교과서는 비밀결사라는 용어 대신 항일 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한중 외, 앞의 책, 184쪽; 김종수 외, 앞의 책, 178쪽.)

22) 김홍수 외, 앞의 책, 196쪽.

‘철권단’, 대구고보의 ‘신우동맹’, 북청농업 ‘독서회’, 광주고보의 ‘성진회’ 등 전국적으로 존재한 비밀결사조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앙교과서의 경우 ‘성진회’만 언급하고, 법문사교과서의 경우 ‘성진회’와 ‘독서회 중앙본부’만 언급하여 광주지역의 비밀결사 위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비밀결사에 대해 대부분의 교과서는 비밀결사가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하지만 대한교과서는 비밀결사가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불어넣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여 다른 교과서와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2. 학생시위의 발단과 전개

모든 교과서는 나주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발생했으며 그것이 발단이 되어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²³⁾에 대하여는 천재와 대한교과서가 박준채의 회고를 인용²⁴⁾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금성교과서도 이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천재와 금성교과서는 박기옥 등 피해여학생과 박준채의 사진을 실었다. 이러한 일화와 사진의 소개는 학생들의 관심을 더 잘 끌게 하였다. 천재와 법문사, 중앙교과서는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인 경찰이 일본인 학생 편만 들어서 확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에 대해 두산, 대한, 금성교과서가 ‘댕기머리 사건’ 자체에만 비중을 둔 반면 천재, 법문사, 중앙교과서는 ‘사

23) 박준채는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인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 장난을 쳤다고 회고하였다.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기사로 실어 일명 ‘댕기머리 사건’이라고 알려졌다. (박찬승, 앞의 논문, 2001, 19쪽.)

24) 천재교육교과서는 ‘댕기머리 사건’을 서술하며, 금성과 대한교과서는 ‘박기옥 등을 희롱’하였다고 서술한다.

건의 처리 과정에서의 민족차별'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비교

	발 단	시위의 확산	개입된 조직	의의와 평가
두산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전국, 만주와 일본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5 만 4천여명 참여)
금성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목포, 나주, 서울 전국, 만주와 일본	학생투쟁지도본부, 광주의 청년단체	(5만 5천여명 참여)
대한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광주에서의 2차시위	학생투쟁지도본부, 광주의 청년단체, 각 학교의 독서회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5 만 4천여명 참여) -4·19혁명,5·18민주 화운동,6월민주항쟁으 로 계승
천재 교육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후의 경찰의 차별대우	광주에서의 2차시위 전라 지역에 시위 소식, 서울, 전국, 만주와 일본	독서회, 독서회중앙본부, 신간회 중앙본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학생전위동맹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5 만 4천여명 참여)
법문사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후의 경찰의 차별대우	목포, 나주, 서울, 전국, 만주와 일본	성진회, 독서회 중앙본부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
중앙	조선인 여학생 희롱 사건 후의 경찰의 차별대우	광주에서의 2차시위 목포, 나주, 서울, 전국, 만주와 일본	성진회, 독서회 중앙본부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 -학생들이 이후 저항의 선봉에서 민족 운동을 펼침

중앙과 금성, 천재, 대한²⁵⁾교과서는 11월 12일에도 투쟁이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금성 교과서는 극화 학습 자료로 “광주학생운동의 전개”라는 글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의 전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목포, 나주의 시위

25) 대한과 천재교과서는 그 뒤에 광주에서 2차 시위가 이어진 것을 서술하지만,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에 관한 언급은 중앙, 금성, 법문사교과서가 하고 있다. 천재교육교과서는 전라지역에 시위의 소식이 전해졌다고만 서술하였다. 그리고 앞의 4종의 교과서는 서울시위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과 대한교과서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한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들은 만주와 일본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개입된 조직에 관하여 중앙과 법문사교과서는 성진회와 독서회 중앙본부만 서술하였고, 금성과 대한교과서는 학생투쟁지도본부를 말하면서 광주의 청년단체도 함께 언급하였다. 여기에 대한교과서는 각 학교의 독서회를 함께 언급하였고, 천재교육교과서는 독서회와 독서회중앙본부와 함께 신간회 중앙본부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학생전위동맹을 언급하였다. 이는 금성, 법문사, 중앙교과서가 광주의 단체를 위주로 말하는 것과는 관점을 달리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에 대해 3·1운동 이후 최대의 운동이었다고 명시하였으며, 숫자까지 언급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광주학생운동에 대해 대한교과서는 이 운동이 이후의 민주화 운동(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으며, 중앙교과서는 이후 학생들이 저항의 선봉에서 민족운동을 펼쳤다고 언급하였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이후의 영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1930년대 노동자, 농민 운동과의 관련성을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3. 항일학생운동의 이념

모든 교과서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 비밀결사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1920년대 학생운동의 변화가 비밀결사의 영

향을 받아 가능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 중앙, 대한, 천재교육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도 비밀결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의 비밀결사조직에 대한 서술 방식은 이름만 나열하거나 학생운동을 주도한 단체, 항일단체라는 정도의 설명에 그치며 그 이념적 성향에 관한 언급은 없다. 대한교과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밀결사는 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불어넣었다고 서술하였지만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다른 단원에서도 역시 그 이상의 서술은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천재교육교과서는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에서 독서회가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였다고 말해 독서회를 포함한 비밀결사가 왜 만들어졌으며 누가 주도한 단체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공개조직으로 비밀결사가 있다면 공개조직으로는 신간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관한 서술은 천재교육교과서에서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신간회에 관련된 서술은 모든 교과서가 하고 있으며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와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의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는 중앙과 천재교육교과서는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두산교과서는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조직된 신간회의 활동이 학생들의 자각을 높여주었다고 서술하여 중앙과 천재교육교과서가 신간회가 구체적으로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족유일당운동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상징적으로 한 역할을 설명하였다.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에서는 두산교과서만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고 서술하고 나머지 교과서는 민중대회 개최의 성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민중대회를 계획했지만 실패하였다고 말한 교과서는 중앙, 대한, 금성교과서

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한 교과서는 천재교육과 법문사교과서로 내용의 차이를 보였다.

모든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 당시의 격문을 실고 있다. 크게 11월의 격문²⁶⁾과 1월의 격문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한교과서만 두 개의 격문을 모두 수록했으며, 나머지는 하나만 기재하였다. 11월의 격문을 실고 있는 교과서는 두산, 법문사, 중앙, 금성, 대한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들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제목을 달리하였다. 법문사와 두산교과서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격문”이라는 제목을 붙인 데 비해, 금성교과서는 “학생들이 뿌린 격문”, 대한교과서는 “학생들, 항일의 깃발을 들다”라는 제목을 붙여 금성과 대한교과서가 학생들이 운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앙교과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학생투쟁지도본부의 격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운동을 한 것과 함께 지도부의 계획된 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었다. 광주에서의 운동을 자세히 설명한 금성교과서도 학생투쟁지도본부에서 인쇄한 격문을 뿌렸다고 말하였다.

천재교육교과서는 “전 조선 전투적 학생에게 격함”, 대한교과서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가 연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된 1월의 격문을 각각 실었다. 1월 격문은 11월의 격문과 달리 ‘지주의 노예’, ‘피압박 계급’, ‘혁명적 시위’라는 단어가 나와 사회주의 성향 쪽으로 흘러갔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나타내는 이념적 표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다. 하나의 격문만 실어 달라진 내용을 비교할 수 없었던 대부분

26) 11월의 격문은 1929년 11월 12일 광주에서의 2차 시위 때 학생투쟁지도본부가 준비하고 배포한 4종의 격문이다. 그 내용은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직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가시키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등이다.

의 교과서에 비해 두 개의 격문을 실은 대한 교과서는 운동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Ⅲ. 광주학생운동사의 쟁점과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 정책

3·1운동 이후 일제는 식민지 지배통치방식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꾸었다. 교육정책도 이와 보조를 맞추어 1922년 제2차 교육령을 공포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식민지통치에 순응하는 실용주의적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제1목표로 삼고, 1911년 제1차 교육령을 발표하여 천황의 충성된 신하를 만드는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3·1 운동 후 민족의 저항이 심해져 이러한 노예교육이 힘들어지자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이 제2차 교육령을 발표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앤다는 소위 ‘준거주의’ 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육 제도의 일부를 개정하였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통치 목표는 조선인의 일본인화, 즉 우리 민족을 말살²⁸⁾시키는 것에 있었으며,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민족차별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운동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²⁹⁾

학생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차별 교육정책과 민족말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민족차별 교육정책에 관해 살펴보면, 일제는 제2차 교육령을 발표하여 내선공학을 내세우고 학교의 종류와 수업의 연한을 본토의 학제와 같은 학제로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 일본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자격이 늘어났으며 대학과 사범대학을 설립한다고 하였다.³⁰⁾ 두산, 중앙, 법문사교

27) 김동춘, 앞의 논문, 174쪽.

28) 신주백, 앞의 논문, 204쪽.

29)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광주학생운동동지회, 1996, 41쪽.

과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서술하나 그 뒤의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일제는 학제의 체계를 민족별로 구분하여 국어(일본어)를 상용하는 사람 즉,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였으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 즉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였다. 이것은 교명만 보아도 민족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³¹⁾ 그리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지만, 현지사정에 의해 5년 혹은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예전과 차이를 두지 못하였다.³²⁾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일제의 선전과 달리 민족차별이 뚜렷하게 있었다. 1925년 당시 조선인은 2천여만명, 일본인은 41만명이었으나 조선인 학생은 6,309명, 일본인 학생은 10,180이었다. 이를 비례로 보면 일본인 학생이 75배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³⁾ 그렇다고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었다. 1924년도 공립학교 경비를 제공하는 지방비의 예산을 보면, 일본인은 1,176,263엔을 부담하고, 조선인은 9,907,404엔을 부담하였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8.4배나 많은 세금을 냈지만 조선인 학생 10명당 일본인 학생은 15.3명이나 되었다.³⁴⁾ 결국 일제는 차별 교육을 받고 있는 조선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본인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고등 교육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29년에 조선에는 5개의 관립 전문학교와 1개의 대학, 그리고 6개의 사립 전문학교가 있었다.³⁵⁾ 일본인

30) 이만규, 앞의 책, 177쪽.

31) 신주백, 앞의 논문, 204쪽.

32) 이만규, 앞의 논문, 171쪽.

33) 「사실:조선인 세금과 일본인교육(하)」, 『동아일보』 1926년 8월 15일(신주백, 앞의 논문, 204쪽 재인용)

34) 신주백, 앞의 논문, 205쪽.

35) 『조선총독부선계년보1931년도』, 22, 667, 669, 670쪽(신주백, 앞의 논문, 214쪽 재인용)

은 전체 인구의 2.5%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립학교의 입학자 수는 조선인이 168명, 일본인이 350명으로 일본인 학생이 과반수를 넘었다. 사립 전문학교의 입학생 501명이 모두 조선이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관립학교 입학자 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인 학생이 사립전문학교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립학교가 일본인에게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조선인 입학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성적이 더 좋아도 일본인과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산교과서는 제2차 교육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여전히 심하였다는 것을 탐구자료에 제시하고 있다. 학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사범학교에 대한 차별의 내용은 서술했으나 대학에 관한 차별은 서술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탐구자료의 내용이 제2차 교육령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본문의 내용은 일본인 교사의 채용비율이 높음을 예로 들어 차별주의가 있었음을 말한다. 일본인 교사의 채용비율이 일제의 차별주의를 설명해줄 수도 있지만 앞에서 제2차 교육령의 내용이 소개가 된 만큼 뒤의 내용도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과 동떨어진 탐구자료를 읽기 전에는 제2차 교육령의 내용에 관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인 교사’라는 한 가지 이유로 교과서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산교과서는 선언적으로 일제의 차별주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이 문제는 탐구자료의 내용을 본문으로 옮기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중앙교과서 역시 두산교과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제2차 교육령에 관한 반박은 하지 않은 채 서당설립문제만 언급하여 일제의 숨겨진 의도를 말한다. 하지만 두산교과서처럼 제2차 교육령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글은 찾을 수 없었다. 학생 수 비교 역시 서당과 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비교하였다. 결국 중앙교과서는 제2차 교육령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서당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여 적절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중앙교과서 역시 결론으로만 일제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문사교과서는 제2차 교육령의 소개 이외에 하급기술자 양성에 관해서만 언급하였고 이는 천재교육, 금성, 대한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법문사, 천재교육, 금성, 대한교과서는 1920년대의 민족차별교육정책에 대해 따로 구분해서 서술하지 않아 광주학생운동의 중요한 원인 하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일제는 수업을 통해 조선인 학생들의 일본인화를 더욱 강제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제2차 교육령에는 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분리시켜 조선어를 정규과목(필수과목)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³⁶⁾ 그러나 각 학교의 규정을 보면 보통학교 규정에는 ‘일본어를 습득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함’이라 하였고,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에는 ‘일본어를 숙달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하여 여전히 일본어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또한 조선어 과목을 상급학교 입학시험과목에서 빼버려 실제로는 무시하였으며, 내용은 허술하게 구성되었고, 가르칠 교원도 책임자가 없었다.³⁷⁾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선어와 한문을 합한 조선어급한문을 배웠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총 수업시간 중 조선어급한문을 12시간(7.5%)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국어급한문(일본어)이 32시간(20%) 배정된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조선어보다 한문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36) 이만규, 앞의 책, 189쪽.

37) 이만규, 앞의 책, 177쪽.

1922년 발행된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券五의 목차를 보면, 조선어의 비중은 전체 62단원 가운데 10.3%인 8개 단원에 불과하였다.³⁸⁾

조선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중앙, 두산, 금성, 법문사교과서가 하고 있다. 중앙, 금성, 법문사교과서는 조선어가 필수과목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었다. 고급인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선어급한문’을 배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구분을 하여 보다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내용에 중앙교과서가 실상을 덧붙인 서술을 하였던 반면, 금성과 법문사교과서는 그것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일제의 선전을 끝이곧대로 믿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다. 금성과 법문사교과서는 허상과 실상이 달랐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두산교과서는 실상은 서술했지만 일제의 주장을 말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조선어에 관한 내용이 빠진 천재교육, 대한교과서도 이를 토대로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학생들이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못하게, 될 수 있으면 조선어를 접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배운 역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제2차 교육령에는 보통학교의 역사와 지리를 정규과목으로 한다고 나온다.³⁹⁾ 하지만 이것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에 관계된 외국의 역사와 지리를 배우는 것이었다. 조선의 역사와 지리는 외국의 역사와 지리 중의 하나로 배운 것이며, 그 역시 식민사관에 입각한 왜곡이 심하여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였다.⁴⁰⁾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관해 서술하는 교과서는 두산, 중앙, 금성교과서

38)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361쪽.(신주백, 앞의 논문, 207쪽 재인용)

39) 이만규, 앞의 책, 180쪽.

40)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34쪽.

이다. 두산교과서는 역사와 지리 교재에서 조선에 관한 것은 철저히 배제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 서술은 역사와 지리 과목에서 조선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비록 식민주의 사관에 의해 쓰여졌으며 외국 중의 한 나라로 취급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에 관한 것을 완전히 없앴다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물론 중앙교과서의 서술도 오해를 살 수 있다.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었다고 하는 서술은 ‘다루었다’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 극히 일부분이 다루어진 것이며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점을 중앙교과서는 확실히 서술하여야 한다. 금성교과서는 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지리도 실상을 설명하지 않아 내용의 첨가가 필요하였다. 또한 역사와 지리를 언급하지 않은 법문사, 대한, 천재교육교과서는 일제의 주장과 실상을 비교하는 내용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인이 다니던 공립학교에서는 보통학교를 제외하고 일본인 교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나마 보통학교도 책임자인 교장은 대부분 일본인이어서 1927년의 경우 조선인이 교장인 학교는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⁴¹⁾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교사들은 조선인 학생들을 노예를 대하듯이 하였다. 그들은 정복자와 같은 태도로 학생들에게 민족적 모멸감을 주는 정복교육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자치활동을 엄격히 금지시켰다.⁴²⁾ 조선인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일본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지식인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과학부는 설치하지 않았고⁴³⁾ 1924년 신설된 경성제국대학 예과는 자유로운 학문탐구보다는 ‘일본정신’의 침투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또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공업기

41) 신주백, 앞의 논문, 206쪽.

42) 신주백, 앞의 논문, 207쪽.

43) 김동춘, 앞의 논문, 174쪽.

술 방면에는 조선인의 입학자 수를 제한하였으며 전문학교 역시 대부분 식민지 대리통치에 필요한 기능인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제는 준거주의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일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 것이다.

두산교과서만이 이러한 내용의 민족말살교육에 대해 중단원⁵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각급 학교의 관리층은 일본이 독점하여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짧게 서술해, 식민지 노예교육을 통한 동화주의였음을 설명해주지는 못하였다. 두산, 금성교과서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 민족적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 짧게라도 언급하고 있지만, 천재교육, 대한, 법문사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일제가 말하는 일본인화는 민족차별을 통한 동화주의였음을 모든 교과서가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제의 교육 행태에 조선인들이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외침이었으며,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보하여,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써 그 뜻을 표출하였다.

2. ‘댕기머리 사건’과 시위의 전국화 과정

모든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발단으로 한·일 학생간의 충돌이 확대되어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댕기머리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댕기머리 사건이란 1929년 10월 30일에 광주중학교 4년생 후꾸다 등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생인 박기옥 등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 것으로 박준채의 회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 천재교과서는 박준채의 회고를 인용해 땡기머리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고, 금성교과서도 이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더욱이 천재와 금성교과서는 박기옥의 사진까지 더하였다. 그러나 땡기머리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춘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상황은 벌어졌지만 땡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인 학생들이 나이도 많고 수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여학생은 岩城錦子와 文錦春, 그리고 이광춘 등이었다고 한다. 당시 박기옥은 현장에 없었는데, 휴학 중이거나 아니면 중퇴를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전남여고에 보존중인 박기옥의 학적부에는 '1929년에 중퇴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정확한 중퇴날짜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11월 3일 사건 이후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월 30일에는 이미 중퇴하고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에 실린 박준채의 회고 내용은 박준채가 그 전의 일을 들어 박기옥을 언급한 것인데, 기자들이 생동감을 위해 당시의 상황으로 간주하여 썼을 수도 있는 것이다.⁴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을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으로 부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주역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1년생인 박준채가 후쿠다 등을 저지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곧 이 싸움이 양교 통학생 간의 패싸움으로 변했고 역전 광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 때 나주역전 파출소에 근무하던 모리다 순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광주고보생들이 나쁘다고 비난하면서 박준채의 따귀를 때리고, 그것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또 폭력을 행사하였다.⁴⁵⁾ 그 다음날에도 열차 안에서 한·일 학생간의 패싸움이 일어났으며, 이를 보고

44) 박찬승, 앞의 논문, 2001, 15~19쪽.

45) 김호일, 앞의 책, 2005, 250~251쪽.

있던 일본인 기자와 승객들은 조선인이 무조건 잘못하였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중학교 교사가 일본인 학생을 감싸는데 반해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박준채는 야단만 맞았다.⁴⁶⁾ 이렇게 사건이 편파적으로 처리되자 학생들은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결국 11월 3일에 폭발하게 된 것이다.

천재, 범문사, 중앙교과서는 한·일 학생 간에 충돌이 일어나자 일본인 경찰이 일본인 학생편만 들어 확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종의 교과서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확대된 것은 민족차별의 분노 때문인 것이지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했기 때문이 아니다.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에 대해 민족차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운동의 발단을 ‘희롱’으로만 접근한다면 광주학생운동이 단순히 민족감정에 의한 호소로써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의식도 갖지 않아 한 번 터지고 나면 끝인 운동으로 여겨질 뿐이다.

광주학생운동이 민족차별로 인해 일어났다고 서술하는 것은 광주학생운동이 일제의 식민지배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의식 분명히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차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희롱을 당한 사건’이 계기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한, 금성, 두산교과서는 운동이 확대된 원인, 즉 일제 경찰과 교사가 한·일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식민지의 민족차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야 한다.

1929년 11월 3일은 일본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명치절⁴⁷⁾이었다. 그

46) 김호일, 앞의 책, 2005, 252~253쪽.

래서 일제는 이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기념식을 치르도록 하였다. 또한 이 날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전남산건육만석달과경축대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여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선인에게 이 날은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개천절이었다. 조선의 개천절이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 일제의 경축일을 기념해야 하는 상황은 며칠 전에 당했던 민족적 차별과 결합되면서 학생들은 분노를 터트리기 시작하였다.⁴⁸⁾ 광주고보생들은 오전에 학교에서 식을 마친 뒤 몇 명씩 떼를 지어 시내로 나왔다. 그들은 먼저 한·일 학생간의 충돌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광주일보사에 몰려가 기사의 왜곡성을 항의하고 윤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서 한·일 학생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광주역 광장이 한·일 학생간의 결투장으로 변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일단 양교 교사들의 교섭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광주고보생들은 다시 강당에 집합하여 시가로 쏟아져 나왔고, 광주농업학교생과 광주사범학교의 조선인 학생들도 학교의 제지를 뿌리치고 학교 담을 넘어 시위 대열에 합세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만세’,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와 응원가를 불렀으며⁴⁹⁾, 수많은 광주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시위 군중은 3만명⁵⁰⁾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차별이 이루어졌다. 조선인 학생들은 70여 명이 구속되고 그 중 62명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지만, 일본인 학생은 7명이 검거되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석방해 일본 경찰의 행동은 아주 편파적이었다.⁵¹⁾ 이러한 경찰의 불공평한 처사는 11월 12일 제

47) 명치절은 명치천황의 탄생기념일로 일본인들에게는 손꼽히는 경축절이었다.

48)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82쪽.

49) 김호일, 앞의 책, 2005, 255~257쪽.

50) 『동아일보』, 1929년 12월 28일자 號外(김호일, 앞의 책, 2005, 257쪽 재인용)

2차 시위가 발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광주에서의 1차 시위가 시위 계획 없이 당일 날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2차 시위는 독서회중앙부가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등 광주지역의 사회·청년 단체와 결합하여 투쟁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조직한 학생투쟁지도본부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⁵²⁾ 광주고보생은 수업중이 울리자 학교를 나와 학생투쟁지도본부가 준비한 총 4종의 격문⁵³⁾ 1000여장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광주형무소로 향했고 광주농업학교생도 이에 합류하였으나 광주형무소 부근에서 대규모의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다. 제2차 시위로 검거된 학생 수는 280여 명으로 시위참가학생 약 550명의 과반수가 되었고⁵⁴⁾ 학생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 군의 사회청년단체 간부들 160여 명도 시위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⁵⁵⁾ 또한 각 학교에서도 무더기로 학생들을 징계하였다. 광주고보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광주농교도 시위에 참가한 학생 전원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광주여고보는 시위에 참여한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이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에 참여한 64명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광주사범학교는 총 38명을 퇴학처분 시켰다.

광주에서는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시위가 일어났다. 1차 시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 2차 시위는 조직이 개입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도 매우 컸다. 1차 시위는 대부분 단순가담으로 처리했던데 비해 2차 시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검

51) 김호일, 앞의 책, 2005, 258쪽.

52) 장석홍, 앞의 논문, 139쪽.

53) “조선민중이여 쫓기하라”, “학생대중이여 쫓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용감히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쫓기하라.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용감한 학생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쫓기하라, 전사들이여 힘차게 싸워라, 힘 있는 데까지 싸워라”

54) 김호일, 앞의 책 2005, 260쪽.

55)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98쪽.

거된 피해 학생의 규모는 타 지역의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으며, 개입된 조직은 운동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화 될 수 있게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2차 시위를 시작으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규모의 항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2차 시위운동을 서술하여야 하지만 법문사, 두산교과서는 2차 시위운동에 관해 서술하지 않았다.

1929년 11월 19일 목포에서는 광주에서의 2차 시위에 비해 상당히 이념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4가지 격문⁵⁶⁾을 살포하며, 광주시위에서 검거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70여명이 검거되었다.⁵⁷⁾ 11월 27일 나주에서도 이 같은 시위가 있었는데, 중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보통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나섰으며, 나주 지역의 사회·청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⁵⁸⁾ 이 시위에서는 16명이 검거되었다.⁵⁹⁾ 목포 시위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주학생운동을 처음으로 이어갔으며, 정치운동으로 급부상한다는 점에서, 나주 시위는 중등학교에서 보통학교의 학생으로 또 타 지역의 사회·청년단체로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광주에서 2차 시위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총독부가 보도통제를 실시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부터는 ‘광주검속학생을 탈환하자’라는 전단의 살포로 서울에서의 시위가 시작되었다.⁶⁰⁾ 이것은 학생들의 투쟁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사회·청년 단체의

56) 4가지 격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면, “피감금학생을 즉시 탈환하라”,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 반대”, “교육에 경찰 간섭 반대”,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중국혁명 지지. 적색 러시아를 지지하라”, “제국주의 전쟁 절대 반대”, “식민지해방 만세”, “무산 계급혁명 만세”이다.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21~122쪽.)

57)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21~122쪽.

58)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25쪽.

59) 김호일, 앞의 책, 2005, 262~264쪽.

60) 조동걸, 앞의 논문, 287쪽.

지원활동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시위가 일어나자 일제는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0여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반은 학생이고, 반은 청년·사회운동가였다.⁶¹⁾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학생들의 대시위가 시작되었다. 경신학교와 보성·중앙·휘문고등보통학교, 제일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시위에 참여했으며, 검거된 학생은 1,200여명이었다. 10, 11, 13일에도 시위는 계속 되었으며 시위와 맹휴투쟁에 참여한 학생은 1만 2,000여명이었다.⁶²⁾ 시위가 계속되자 일제는 13일부터 서울의 각급 학교에 대한 전면 휴교를 조치하였다.⁶³⁾ 서울에서의 시위는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사회·청년단체의 지원으로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서울 시위 역시 두산과 대한교과서에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의 결론부분에서 광주학생운동이 3·1운동 이후 최대의 규모였으며, 54,00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천재교육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는 결론에 비해 목포, 나주, 서울 시위 등 운동의 전개과정이 너무 간략하게 언급되어있거나 그 조차도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개입된 단체에 대해서도 광주의 단체를 위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광주학생운동이 광주만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광주학생운동이 전국학생운동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론에서만 전국학생운동이었다고 서술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한과 중앙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교과서는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너무 장기적인 관점의 평가를 해서 막연하고, 중앙교과서는 학생들이 저항의 선봉에

61)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31쪽.

62) 광주학생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35쪽.

63) 조동걸, 앞의 논문, 288쪽.

서 민족운동을 펼쳤다고만 말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막연하다. 광주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이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닌 사람 중 상당수가 이후 조공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혁명적 노동조합·농민조합 운동에 종사하였다.⁶⁴⁾ 이러한 조합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을 경험한 세대는 1930년대의 노동·농민 운동 역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힘을 합쳤다.⁶⁵⁾ 이렇게 광주학생운동이 1930년대 노동·농민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는 이 내용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다.

3. 개입 조직과 이념의 문제

모든 교과서는 비밀결사가 학생운동의 보다 조직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것을 서술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결사라고 말하면서도 광주지역의 독서회와 독서회중앙부 정도만 언급하였으며, 그 역할에 비해 비밀결사의 실체에 관해 언급한 교과서는 찾기 힘들었다.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이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들이 6·10만세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이후 사회주의계열의 학생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족주의자의 논리가 일제의 지배정책에 타협·순응해 가기 시작한 반면, 사회주의의 논리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워 사회변혁의 이상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민족차별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에게 급속히 영향력을 발휘하였다.⁶⁶⁾ 이후 학생운동의 조직은 사회주의 계열이

64) 구체적인 인물의 예는 이준식,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성격」,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205~207쪽을 참조할 것.

65) 이준식, 「광주학생운동과 민족운동 세력」,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199쪽.

66) 김동춘, 앞의 논문, 174~175쪽.

주도하는 두가지형태의 학생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첫 번째 비밀결사는 사회과학 곧 맑스주의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학생 운동에서 핵심이 될 지도인자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각 학교 특히 중등학교 단위로 결성된 독서회였다.⁶⁷⁾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학생 비밀결사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각 학교의 독서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틀을 벗어나 지역 단위로 조직된 새로운 형태의 비밀결사였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그당’, ‘조선학생혁명당’, ‘조선학생전위동맹’, 대구의 ‘신우동맹’, 광주 ‘성진회’ 및 ‘독서회중앙본부’ 등이 있다. 이 조직 모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일정하게 관여했으며, 학생층과 학교 밖의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⁶⁸⁾

천재교육교과서⁶⁹⁾는 독서회가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에서 말하고 있어 이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대한교과서는 비밀결사가 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불어넣었다고 서술하였다. ‘계급’이란 단어는 사회주의가 개입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서술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천재교육교과서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에서 그 내용을 서술해야 하며, 대한교과서는 그 내용을 직접 서술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교과서는 비밀결사와 사회주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다. 교과서는 1920년대의 학생운동이 변화하였다고만 서술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해야 할 것이다.

67) 이준식, 앞의 논문, 1995, 202쪽.

68) 이준식, 앞의 논문, 1995, 203쪽.

69) 김홍수 외, 앞의 책, 222쪽.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화 될 때 개입하는 단체 역시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천재교육교과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학생전위동맹 등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는 정도의 서술에 그치고 있다. 물론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학생전위동맹 역시 사회주의 관련 단체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서울 지역의 학생 시위는 조선학생전위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의 두 계열을 중심으로 상호 협조아래 지도되었다. 이 두 계열은 12월 2일 밤 서울 시내의 경성제국대학, 제1고보, 보성고보, 중앙고보, 중등학교 등에 수천 매의 격문이 살포하였고, 이를 계기로 13일까지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학생전위동맹은 1927년 서울 송인동 고학당학생 이학중, 정관진, 김태래 3명이 모여 만든 ‘학생혁명당’의 후신으로 고학당 이외의 학교에도 세포단체로서 독서회를 둘 것을 계획했지만 중앙고보, 중등고보 정도에만 조직이 확대된 소규모 지하단체였기 때문에 격문의 배포를 전부 담당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권유근이 학생전위동맹원 정종근 등과 연락하여 격문 1,800매를 인쇄하여 경신학교와 중등학교에 배포하였고, 나머지는 조선청년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 차재정 및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 곽양훈과 모의하여 격문 8,000매를 경성여자상업학교, 동덕여학교, 중앙고보, 중등학교에 배포하였다.⁷⁰⁾

천재교육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서울 시위를 지도한 조선학생전위동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교과서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⁷¹⁾에서 조선청년총동맹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1923년 이후 청년 운동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70) 김성보, 앞의 논문, 1989, 128~129쪽.

71)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에서 조선청년총동맹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운동과의 연관성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조선청년총동맹은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역량이 조직적으로 결집된 단체였다.⁷²⁾ 따라서 학생운동을 항일 운동으로만 서술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광주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다.

이것은 신간회에 관한 서술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에 끼친 영향이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 11월 초에 시작된 학생 투쟁이 전국운동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신간회 집행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은 조사와 공식적 항의 이외에는 더 이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계속 휴교, 검거되었지만 신간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시위 투쟁이 계획되고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신간회 집행부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좌파가 참여한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주의 좌파 중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비밀 결사나 대중 투쟁의 형태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준비한 민중대회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고, 2만부의 격문을 살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00여매를 인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민중대회의 개최일인 12월 13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때는 서울 시위가 일어나 많은 학생들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제가 휴교 조치를 내려 학생들이 대거 귀향한 뒤였다.⁷³⁾

이렇듯 신간회가 끼친 영향은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청년총동맹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는 민중대회의 개최를 말하면서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다. 더욱이 천재교육과 범문사교과서는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고까지 서술한다. 광주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한 조선학생전위동맹, 조

72) 안건호·박혜란, 앞의 논문, 84쪽.

73) 이준식, 앞의 논문, 2000, 189~196쪽.

선학생과학연구회, 조선청년총동맹에 관한 서술보다 신간회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훨씬 더 부각시킨 교과서 서술은 문제가 있다. 특히 천재교육과 법문사교과서는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고쳐서 서술해야 한다.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격문의 내용도 변화를 보인다. 광주에서의 2차 시위에서의 격문은 일제의 민족차별 교육정책에 관해 부정하는 내용과 학원의 자율과 학생의 자치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독서회와 관련이 있어보이는 “사회과학연구의 자유화”,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화”의 내용도 포함하여 좀 진보적이고 과격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문제, 학원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목포 시위부터 격문의 내용은 많은 변화를 보인다. “피감금학생을 즉시 탈환하라”, “총독 부폭압정치 절대 반대”, “교육에 경찰 간섭반대”,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식민지 해방 만세” 등의 내용은 학생운동이 교육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해방운동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중국혁명 지지”, “적색러시아를 지지”, “제국주의전쟁 절대 반대”, “무산계급혁명 만세” 등의 구호도 함께 등장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위에 ‘붉은 기’를 들었다고 한다.⁷⁴⁾

서울에서의 시위 역시 “타도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 기타 제악법 즉시철폐 요구”, “총독정치 절대반대”⁷⁵⁾의 구호와 함께 “약소민족 해방만세”, “제국주의의 타도만세”, “피압박민족 해방만세”, “무산계급 혁명만세”의 구호와 낮과 별이 그려진 붉은 기를 들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⁶⁾ 그리고 서울 시위 후 전국적으로 운동이 전개될 때에도 “조선독립만세”의 구호와 붉은 기의 등장은 늘어난다.⁷⁷⁾

74)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21~122쪽.

75) 신주백, 앞의 논문, 240~243쪽.

76)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앞의 책, 156쪽.

즉, 광주에서의 2차 시위는 학내의 자율성에 관한 구호를 위주로 제기되었지만, 그 후의 구호는 정치운동,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에 개입한 단체를 의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운동성을 포함하지 않는 11월의 격문만 신고 있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며 바뀌는 모습을 알기 힘들게 하였다. 교과서가 항일 운동이 사회주의 성향을 보였던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의도적으로 서술을 배제한 것은 그것을 해방 후의 분단 논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식민지 자본주의에 반발하는 항일 운동은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발전시킨 사회주의에서 논리를 구하고 있었다.⁷⁸⁾ 광주학생운동의 전개에 가담한 청년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서술 부족은 광주학생운동을 당시 항일 운동의 전반적인 실천적, 이념적 추세 속에서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 개입된 단체에 대해 서술하지 않으면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의의가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 시기의 사회주의적 구호는 단지 사회주의적 이념을 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호는 학생의 목표가 단순한 한·일 학생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일본 총독부 권력 타도, 즉 민족의 독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는 현재의 이념적 잣대를 적용하여 당시 항일 운동의 한 부분인 사회주의 운동을 배제시키고 민족주의 항일운동이었다고만 말한다. 이러한 서술 대신 당시의 사회주의는 항일 운동의 부분이었음을 말하고 개입단체, 구호에 대한 설명을 하여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었음을 부각시켜 서술해야 할 것이다.

77) 조동걸, 앞의 논문, 289~291쪽.

78) 조동걸, 앞의 논문, 298~299쪽.

IV. 결 론

광주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큰 독립 운동이었다. 또한 1920년대 학생운동을 총결산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광주학생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운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배치 순서, 이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광주학생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광주학생운동을 이끈 학생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현재의 학생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민족차별 교육정책과 민족말살 교육정책은 1920년대의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고 1920년대의 학생운동이 있었기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의 세 가지 내용의 서술은 모든 교과서가 하여야 한다. 교과서의 편성 사정상 광주학생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서술하는 부분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단원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앞에 오고, 여기에 저항했던 학생운동이 뒤에 쓰여져야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단원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이 중단원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보다 앞에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우리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심화시키는 과목이다.⁷⁹⁾ 하지만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서술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찾기 힘들다.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에 대해 하나의 사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이 전체 운동의 흐

79)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1997, 160쪽.

름을 타고 일어났다기 보다는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다는 쪽에 무게를 실는다. 이것은 학생 운동의 독자적 의의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여 논리력을 기르게 하는 역사 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 운동이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변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중단원 “3. 무장독립전쟁의 전개”의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 광주에서의 운동만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는 광주에서의 운동만을 크게 다루고 나머지 지역은 규모만 말하는 서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에서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사회주의 개입 때문인 것 같다. 모든 교과서는 신간회에 관하여는 광주학생운동에 일조하였다고 서술하면서 정작 광주학생운동을 전국학생운동으로 이끄는 데 공이 많은 사회주의 단체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다른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간회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광주학생운동을 언급하는데 비해 조선청년총동맹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광주학생운동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학생운동에 사회주의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호를 소개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11월의 격문만 실고 있어 그 이외의 지역에서 뿌려진 격문은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구호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주의에 관련된 서술을 배제시킴으로써 광주학생운동은 광주만의 학생운동으로 격하시키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주의는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당시의 사회주의를 현재의 냉전 관념 때문에 교과서 서술에서 배제해 항일 운동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사회주

의를 서술한다고 해서 학생운동으로써의 독자적 의의가 격하될 필요도 없다. 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연계도서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1997.
-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7.
-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7.
-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7.
-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7.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7.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7.

2. 연구논저

- 고영진, 『광주학생운동사』, 광주학생운동동지회, 1996.
-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광주학생운동독립운동사』, 광주학생운동동지회, 1996.
- 김동춘, 「1920년대 학생운동과 맑스주의」, 『역사비평』 가을호, 1989년.
- 김성민,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발달」, 『한국근현대사연구』 37집, 2006.
- 김성보, 「광주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청년·학생조직」, 『역사비평』 봄호, 1989.
- 김호일, 「광주학생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8,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김호일,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 박찬승,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정치사상적 배경」, 『전남사회운동사연구』, 한울, 1992.
- 박찬승,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사학』 9호, 전남사학회, 1995.
- 박찬승외, 『광주독립학생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 신주백, 「1930년대 사회주의운동 연구」, 『국사관논총』 6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Ⅱ, 여강, 1993.
- 이만규, 『조선교육사』Ⅱ, 거름, 1991.
- 이상식, 「1920년대의 광주지방과 학생운동」, 『국사관논총』 6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이에숙,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진영의 전술전환과 신간회해소문제」, 『역사와 현실』, 1994.
- 이재의, 「새롭게 부각한 배후세력의 성격」, 『예향』 62호, 1989.
-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 『역사와현실』, 1994.
- 장석홍, 「광주학생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 가을호, 1989.
-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6.
-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 최성원, 『11·3 운동』, 대한교과서(주), 2004.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한국역사연구회·전남사학회,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0.
- 한정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예향』 62호, 1989.
- 한정일, 『일제하 광주학생민족운동사』, 한예원, 1981.

Abstract

The analysis of contents about Gwangju Student Movement in the 7th curriculum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Min Kyoung, Kim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Japanese empire announced second educational law in 1922, established the politic of 'Japanization of Korean', and adopted the principle(Jungeojuui) which eliminates discrimination between Chosen people and Japanese. However, the education in the school made Joseon students feel shameful by the reason why they were Joseon people, as well as Joseon students learned that Japanese discrimination against Joseon people was reasonable. Educational politics related to racism showed clearly that Joseon people and Japanese were not treated equally. The discrimination against Joseon people worked as an objective cause in occurrence of Gwangju student movement.

The consciousness against Japanese empire in Joseon students was increased since 1920s, thus student movements gradually begun to be developed. Since late 1920s, groups of independent movement started to involve with Gwangju student movement, thus Gwangju student movement was gradually systematized. Gwangju student movement developed as the whole national movement with combining objective

cause with the independent power of Chosen people.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consider the cause of Gwangju student movement not as 'the case of a pigtail ribbon' but as structural dimension like racism. In the process of student movement's development, they emphasize Gwangju student movement's extension into whole national movement and its meaning. In addition, they think that Gwangju student movement was second to 3.1 movement and it contributed to laborer movement and farmer movement in 1930s.

In spite of a lot of researches in the field of history, the 7th curriculum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shows several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specific contents and the way of writing history.

First, the description about the education of ethnic discrimination which is important cause of Gwangju student movement is lack, and the arranging order makes to be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Gwangju student movement. In the beginning of Gwangju student movement, the 7th curriculum textbook treats heavily only 'the case of a pigtail ribbon', and it interferes to identify Gwangju student movement in terms of the flow of whole Gwangju student movement. Moreover, it is the problem that the history textbook first of all intentionally excludes communistic groups related to Gwangju student movement. Finally, because of these problems, the meaning of Gwangju student movement as whole national movement is not revealed well.